

## 12. 가락동 시절(1990~1992)

1990년(69세) 3월 7일 송파구 가락동 147번지 대지 125평을 구입하였다.

동자동에서 청담동으로 옮겨온 지 13년 만에 미개척지 같았던 청담동이 패션거리로 바뀌면서 주변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소위 오렌지족들이 몰려오면서 거리는 패션점과 술집으로 채워져 갔다. 처음에는 한양아파트 앞쪽에만 변화가 일더니, 이 변화가 주택가를 파고들었다. 유치원 주변의 집들이 하나 둘씩 팔려나가고 새로운 건물들이 골목골목에 생겨나자 이제 더 이상 이곳은 주택가가 아니었다. 조용하고 한적한 교육환경에서 서서히 떠들썩한 유흥가로 변해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나운영 부부는 다시 큰 결단을 한다. 한 평생 그래왔듯이,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대상지역을 알아보던 중 송파지역이 낙점되었다. 당시 송파는 개발이 시작되는 초기였다. 마치 13년 전에 강남으로 올 때의 모습이었다. 사통팔달 시원하게 뚫린 길들이 눈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서울성남교회에서 개척했던 그 까마득한 시골이었던 문정리교회(현재 문정동 로테오거리에 있는 정락교회)가 바로 옆이었다. 유치원이나 교회나 이런 지역에서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그 결심을 실행에 옮겼다. 가락동 민정당연수원 부지와 성동구치소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가락동 147번지에 유치원 건물을 지을 대지를 구입하는 한편, 이번에는 아예 독립된 교회를 세우기로 하고 상가건물을 알아 보던 중 가락동에서 조금 떨어진 오금동에 매물로 나온 교회가 있었다. 지하에 교회가 있고, 1층과 2층은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 처음부터 교회개척을 위해 건축하다가 목사님이 소천하시는 바람에 매물로 나온 건물이기 때문에 지하라도 천정이 무척 높아 답답하지 않았고, 연립주택 전세금을 안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도 적당하였다.

사실 가락동으로 유치원을 이전하기로 하였을 때는, 나운영 부부도 칠십을 코 앞에 둔 나이였기 때문에, 건물 대부분을 상가로 임대하고 유치원은 취미 삼아 한 클래스 정도만 운영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건축을 시작하면서 처음 생각했던 구상은 다 사라지게 되었다. 8차선 대로변에 위치를 정한 것은 임대하기 좋은 건물을 짓기 위한 것이었는데,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유경손이 다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나이 칠십이 청춘이라고 생각했던 유경손으로서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기왕 유치원을 지을 것이었다면 주택가 안쪽에 마당이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다. 어쨌든 건축은 진행이 되었고, 나운영은 건물 4층에 지금보다 훨씬 넓은 서재를 갖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흥분해 있었다.

8월 4일 송파구 오금동 44 현대아파트 28동 201호로 이주하였다.



청담동에서의 생활은 유치원과 교회와 주택이 서로 얽혀 있는 생활이어서 좋은 점도 많았지만, 가족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무언가에 얽매어 있는 듯한, 자유롭지 못한 느낌이 많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치원과 교회는 차로 5분 정도 거리 떨어진 곳으로 정하였고, 주택은 삼각형의 한 꼭지점이 되는 정도의 위치에 정하였다. 아파트에서 유치원까지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였으므로 나운영은 늘 걸어 다녔다. 아파트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그 지긋지긋하던, 겨울철이면 파이프 얼까봐 노심초사하던 생활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너무 좋았다. 하지만 한 가지 서운한 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크리스마스 가족예배를 예전처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참에 나운영 가족의 크리스마스 예배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

나운영 가족은 매년 12월 25일 0시에 온 가족이 모여 크리스마스 가족예배를 드렸다. 동자동 집에서 부터 집 안에 벽난로를 두었고, 청담동에서도 집 안에 벽난로를 만들었는데, 이 벽난로 주변에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초를 여러 개 장식해 놓고 한쪽 구석에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멋지게 장식해 놓았다. 예배 시작 전에 가족들끼리 서로 주고 받을 선물들을 포장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갖다 놓고, 벽난로 앞 테이블에는 십자가 모양으로 흰 초를 세워 놓았다.

시계가 0시 정각을 가리키면 가족 모두가 벽난로 앞에 모여 앉았고, 집안의 모든 불을 끈 채 집안의 가장인 나운영의 초에만 불을 밝혔다. 가족 모두가 허밍(Humming)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조용히 부르는 동안 나운영은 테이블 위에 놓여진 십자가 모양의 초에 불을 밝힌다. 암흑 속에서 십자가만이 광채를 나타낼 때 유경손이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낭독하였다.



그 다음 장녀인 효선이 벽난로에 장식된 초록색 초에 불을 밝히며 평화의 메시지를, 차녀 효진이 빨간색 초에 불을 밝히며 사랑의 메시지를, 세 번째로 장남 건이 노란색 초에 불을 밝히며 정의의 메시지를 낭독하였다.

이어서 모든 가족들이 나이 순서대로 차례로 벽난로에 있는 모든 초에 불을 밝혔고, 모든 초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빛을 낼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찬송하였다. 찬송이 끝나면 나운영이 성경봉독을 하였고, 이어서 유경손이 온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였다. 기도가 끝나면 모두 힘차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송하였고 주기도문으로 끝을 맺었다. 이것으로 공식적인 예배 순서는 끝이 난 것인데, 그 다음 순서가 가장 곤혹스런 시간이었다. 그것은 가족들 각자가, 나운영부터 가장 어린 손자에 이르기까지 일 년 동안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는 순서였다. 정적 가운데 벽난로 속에서 타닥타닥 소리를 내는 나무 태우는 소리만 들리는,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일년 동안 지내온 지난날을 이야기하다 보면 웬지 모르게 울컥해져 눈물이 글썽글썽해지기 일쑤였다.

그래도 어찌됐건 이 피하고 싶은 순서가 끝이 나면 그동안의 모든 잘못을 떨쳐 버리듯 집안의 모든 불을 다 밝히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순서를 기다렸다. 어렸을 적엔 가장 기다리고 기다리던 선물교환 순서였다. 가족들끼리 서로 모르게 선물을 준비하고 카드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적어 넣었다. 가장 나이가 어린 순서부터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놓여 있는 자기 몫의 선물들을 챙겨 가지고 왔는데, 가슴 한가득 자기 이름이 적힌 선물보따리를 안고 올 때의 기쁨은 뭐라 표현할 수 없었다. 가족들 각자 한 무더기 선물을 안은 채 가장 나이 어린 순서대로 선물 하나 하나를 풀어보며 그 안에 적혀 있는 카드를 읽었다. 나운영이 맨 마지막으로 선물을 다 풀어보면 이 크리스마스 가족예배의 모든 순서가 마치게 된다. 그 다음은 즐거운 밤참시간.

비록 오금동에서는 벽난로가 없어 예전과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는 없게 되었지만,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테이블에 장식된 초에 불을 밝히는 이 가족예배의 전통은 그후로도 계속되었다.

8월 14일~16일 한국찬송가위원회와 한국찬송가공회 주최 <제1회 Asia 찬송가 국제 Seminar>에서 「한국 교회음악의 토착화와 현대화」를 주제로 강의하였다.

1991년(70세) 1월 26일 한국 애서가 클럽으로부터 제1회 애서가상愛書家賞을 수상하였다.



나운영은 이 애서가상이 책을 많이 모은 사람에게 주는 상이라면 사양하겠지만, 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라면 기꺼이 받겠다고 하였다.

나운영의 서재는 여간해서는 잘 공개하지를 않지만, 한번 찾은 사람들은 그 수량에 일단 놀란다. 개인이 소장한 책의 수량으로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음악을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그 다양함과 집요함에 다시 한번 놀란다. 음악이론에 관한 서적은 물론이고, 국악, 민족음악, 동양음악, 실크로드, 전자음악 등 주제별로 잘 정리된 서가를 보면서 놀라는 것이고, 또 하나 놀라는 것은 같은 책이 여러 권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같은 책이라도 초판본부터 2판, 3판 등까지도 빠짐없이 구입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놀라는 것은 그 많은 책 중에서 아무 책이나 꺼내 보아도 거기에는 페이지를 표시하기 위한 종이 쪽지들이 꽂혀 있기 때문이다. 이 서가에 꽂힌 책들이 그냥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운영이 일일이 다 읽고 연구한 책이라는 것이다.



목록을 만들어 놓지 않아도 나운영은 어디에 무슨 책이 있는 지를 훤히 꿰고 있었다. 한 권쯤 없어져도 모르겠지 하고 가져가면 어김없이 도로 갖다 놓으라고 성화였다. 나운영의 절대적인 원칙. 책은 절대로 빌려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원칙도 그냥 생겨난 것은 아니다. 책을 빌려주면 열이면 열 돌아오는 법이 없었다. ‘이 사람이라면 절대 믿을만하다.’ 하고 빌려주어도 책을 잃어버렸다고 하고서

는 돈으로 변상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희귀한 책들은 아무리 돈을 더 준다고 해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후회한들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나운영은 자신의 원칙을 세우고 아무리 사랑 하는 제자라 할지라도 복사는 해줄 망정 절대로 빌려주지는 않았다.

2월 7일 **한국 성가창작 동인회 작곡분과 상임위원에 선임**되었다.

2월 14일 가락동 유치원 건물이 완공이 되었다. 지하 1층, 지상 4층 벽돌건물로 1층은 상가 임대를 위해 비워 놓았고, 2층과 3층은 유치원으로, 4층은 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준비하였다. 지하에는 체육놀이를 할 수 있도록 마루를 깔고, 2층에는 원아들이 활동하기에 편하도록 온돌을 깔았으며, 3층은 강당 겸 대그룹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루를 깔고 층고도 높였다.



4층은 나운영의 연구실과 서재로 꾸몄는데, 나운영은 남은 여생동안 작품활동과 함께 음악도서관을 만들어 논문지도와 자료연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청담동에서 무려 30대나 되는 트럭으로 옮겨온 책과 악보와 레코드들을 다시 정리해야 했으나 나운영은 행복하기만 하였다.

운경유치원은 이 곳에서 3학년 인가를 받아 2006년 제46회 졸업식을 끝으로 폐원할 때까지 원아들을 배출하였는데, 1회부터 졸업생 총수는 2,707명이었다.

3월 1일 **고희古稀**를 맞았고, **인촌 김성수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에 취임**하였다.

칠십이 된 나운영은 여느 할아버지가 다 그렇듯이 친손자 재물을 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남들에게는 다소 쌀쌀맞은 듯 대하던 나운영이지만, 특히 손녀에게는 얼굴만 바라보아도 무엇이 그리 좋은지 싱글벙글이었다. 다른 일에는 시간 없다고 하면서도 손녀가 부탁을 하면 무슨 부탁이던 찢쩍매며 들어주었다. 특히 작곡을 하고 있을 때 다른 가족이 방해하면 불같이 화를 내곤 하던 나운영이었지만 손녀가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방해하면 언제든 거절하는 적이 없었다.

나운영이 손녀에게 가끔 들려준 '믿거나 말거나'한 이야기가 있다. 나운영이 학창시절 스케이트를 타고 뽕뽕 언 한강을 건넜다는 것이다. 더 실감나게 하려고 나운영은 꼭 한 말을 더 했다.

“한강에 겨울 낚시를 하려고 뚫어 놓은 구멍이 있었거든. 여기를 지나갈 때면 두발을 모으고 경충 뛰어 넘어가야 했어.”

운동신경 없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나운영이 스케이트를 타고 그것도 한강 위에서 점프를 했다는 게 믿을 수 있겠는가? 유경손조차 나운영이 스케이트를 타는 모습을 한번도 본 일이 없었는데. 믿거나 말거나이다.

여기서 잠깐 나운영의 취미에 대해 알아보자.

나운영의 첫째 취미는 ‘다방순례’로, 스스로 ‘커피당 당수’요, ‘다방조합장’이라고 할 정도로 다방을 순례하는 것이 일과로 되어 있었다. 나운영의 두 번째 취미는 ‘서점순례’로, 충무로나 세종로의 외국 책방은 물론이고 동대문, 청계천 구석구석을 찾아 다녔다. 나운영의 세 번째 취미는 ‘추상화 감상’으로, 미술 전람회장을 부지런히 드나들었다.

여기까지는 나운영 하면 의례 떠오르는 취미이나, 나운영의 네 번째 취미가 의외다. 나운영은 TV로 레슬링이나 권투 경기를 보는 것을 무척 즐겨했다. 스스로 TV 레슬링 중계 구경에 미치기 시작해서 이 구경 때문에 밤 예배를 못 본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광팬이었는데, 김일 선수나 천규덕 선수가 일본 선수들과 경기를 할 때면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흥분을 해서 소리소리 지르며 응원을 했고, 경기에 이기면 벌떡 일어나 “마르고 땀도록…”을 외치곤 했다.

‘마르고 땀도록’이란 짐작하겠지만 애국가를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처음에는 레슬링만 좋아하다가 권투 경기까지 흥미를 갖게 되니 중계가 있는 날이면 목이 다 쉴 정도로 응원을 하는 바람에 온 집안이 떠나갈 지경이었다. 평소 얌전한 듯한 나운영이지만 내면에는 뜨거운 용암이 꿈틀거리 가끔씩 가족들한테 폭발하기도 했는데, 레슬링이나 권투 경기를 통해 마음껏 발산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3월 2일 미국 Washington 연합성가대의 초청으로 Kennedy Center에서 〈한국 성가와 가곡의 밤〉을 개최하였는데, 나운영이 직접 지휘하였다.

3월 6일 미국 시카고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동문회, 시카고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주최로 나운영 장로 교회음악세미나를 하모니피아노사에서 개최하여, 「교회음악의 토착화와 현대화」라는 주제로 강의하였는데, 내용은 1. What-How-Why 2. Rhythm-Melody-Harmony 3. 창법(연주, 해석법)이었다.

5월 23일 제33회 삼일문화상 예술부 심사위원에 취임하였다.

5월 27일 한국교회 음악학회 주최 〈제8회 교회음악세미나〉에서 「교회음악의 한국화」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였고, 28일~6월 2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한 Music Today 1991에 참가하였다.

7월 8일 교신대학 부설 교회음악 연구과 주최 제2회 교회음악 강습회에서 「한국교회의 찬송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였고, 17일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주최 1991 교회음악 세미나에서 「교회음악의 토착화와 현대화란?」라는 제목으로 강의하였다.

7월 20일 김병기 작사 나운영 작곡 『부활절 칸타타』(교회음악사)를 출판하였다.



그동안 성가합창곡집에 1,2곡씩 나누어 출판하였던 것을 35년 만에 5곡 전곡을 한데 모아 출판한 것이다.

7월 22일~24일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회음악학과 주최 제10회 교회음악 강습회에서 「교회음악의 토착화와 현대화」, 「현대적인 찬송가와 성가대음악 1,2」를 주제로 강의하였다.

8월 15일~17일 한국선교총회신학교 주최로 <제1회 교회음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0월 30일 나운영은 자신의 동요 중에서 유치원 동요, 옛 동요, 새 동요, 어린이 찬송가, 합창곡 100곡을 선정하여 나운영 작곡 『동요100곡선』(세광음악출판사)을 출판하였는데, 그 머리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 “문기낙이지기정(聞其樂而知其政)”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백성들의 노래를 들으면 그 나라가 흥하느냐 쇠어 들어가느냐를 알 수 있다는 말이니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아름다운 동요 · 한국적인 동요 · 명랑한 동요가 많이 불려질 때 우리나라는 반드시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교회(古稀)를 맞이하여 나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동요다운 동요> · <토착화와 현대화된 우리의 동요>를 부름으로써 티없는 동심을 되찾아주는 이 구국적인 <동요 부르기 운동>에 앞장서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11월 17일 호산나교회에서 열린 <제142회 나운영 작곡 신작 성가 월례 발표회>에서 한국찬송가 1,000곡을 봉헌하였다.

11월 20일~23일 한국선교총회신학교 주최 제2회 교회음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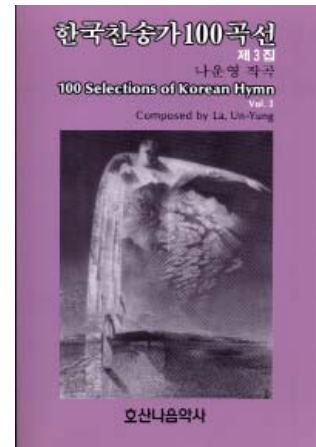
12월 2일 한국 성음악협회 회장에 취임하였다.

12월 7일 고희古稀기념 『작품집』 봉정식을 새로 건축한 운경교육관에서 가졌는데, 고희 기념집에 수록된 나운영 문하생 명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강순미 강신의 강신정 강창식 고영옥 고희준 공석준 광병완 구영길 권영숙 권영주 김경환 김광순  
 김광은 김광일 김광진 김귀주 김규태 김덕규 김덕영 김동환 김미라 김병규 김병재 김상태 김상희  
 김 선 김선주 김성지 김성환 김소양 김수경 김수정 김순세 김승년 김시은 김예순 김영방 김영수  
 김영희 김인규 김인석 김은경 김정삼 김정일 김정애 김정진 김진한 김춘화 김충우 김현덕 김혜영  
 김홍경 김화서 나성호 나수성 나인용 나현숙 남수길 남영조 남해영 노덕래 도정삼 문경남 문경원  
 문익남 문정옥 문정현 민기만 박경숙 박기청 박동원 박명석 박병환 박성식 박신관 박영수 박영순  
 박옥운 박용준 박인자 박재열 박재훈 박종배 박준상 박태이 박혜경 박희경 백태현 백효죽 변종모  
 사지형 석선희 선우현 성낙헌 손대업 송예경 송인숙 송철연 송태옥 송해섭 신금선 신동민 신상호  
 신요한 안수자 안일웅 안재성 안정란 안종희 양일용 여명희 여병효 연영희 원경수 오소운 오일석  
 유명희 유승렬 유인식 유재덕 유혜옥 윤동균 윤순자 윤용석 윤학원 윤해중 이경혜 이경희 이관섭  
 이광혜 이 규 이만방 이문승 이미배 이보형 이삼은 이상언 이상재 이상철 이성자 이성주 이송  
 자 이순옥 이영순 이영자 이영조 이영철 이옥순 이용희 이용찬 이은경 이인순 이인자 이장우 이  
 정옥 이정현 이찬해 이창섭 이춘길 이춘자 이필렬 이행준 이현미 이현숙 이해영 이호일 인준호  
 임춘원 장순호 장영주 전규식 전덕영 전미화 전석환 정동순 정병숙 정부기 정세문 정원식 정인태  
 정태자 정희철 조동화 조문양 조백봉 조병옥 조복렬 조봉희 조우현 조소란 조숙제 조신욱 조원숙  
 조은영 조의수 조정옥 조현진 조혜숙 차정순 천병화 최경철 최동신 최동수 최동준 최명기 최부자  
 최영희 최옥자 최정숙 최종진 최진룡 최 충 최훈차 최희중 한동현 한병철 한정희 함태균 허홍순  
 홍낙훈 홍사은 홍형삼 황성팔 황성희 황재기 <가나다순>

12월 21일 나운영 작곡 『한국찬송가 100곡선 제3집』(호산나음악사)을 출판하였는데, 나운영은 그 끝말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략) 금년 11월이면 드디어 1,000곡을 돌파하게 되는데 나는 이 일을 사명으로 알고 - 손의 피가 마를 때까지 - 계속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992년(71세) 5월 13일 주한독일문화원에서 열린 '92 새마당 III 서울의 봄에서 김남숙의 피아노로 「Suite Exotic for children」을 재연하였다.